

실무자로서 느끼는 무료개안 수술사업!

의정부성모병원 사회사업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을 위한 의료봉사, 선교, 자선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 의료기관이다.

특히 의정부성모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징으로는 배후조건으로 농촌사회라는 것과 더불어 노령계층과 저소득계층이 많아 보건, 의료에 있어 취약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원을 찾아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 처해있는 것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실천차원에서 자선진료, 의료봉사 활동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나누고 있으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없지 않다.

이러한 때에 한국 가톨릭병원협회에서는

한빛은행과 함께 대희년을 맞이하여 전국의 불우한 실명자들에게 “빛”을 찾아 줌으로써 가톨릭이념인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무료개안수술사업을 펼쳐 왔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료기관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 소속감과 자긍심을 함께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무료개안대상자로 선정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로서 의료보호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며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소원한 관계에 있는 불우한 우리 주변 이웃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개안수술비용뿐만 아니라 간병인비용 지원 등 개인적인 심리사회적 상담과 더불어 대상자들에게 삶의 의지, 용기를 북돋아 주기에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시술대상환자분들이 퇴원하면서 수술에 대한 만족감과 더불어 이 사회를 위해

함께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살아 가겠노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하며 눈물을 보이면서 가시는 분, 병실방문을 하게되면 고맙다며 음료수 한병, 알밤 몇 알을 두손에 꼭 쥐어주시던 80대 고령의 할머니 환자 등 많은 분들의 고마움 속에 실무가로서 무한한 감사와 책임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사업이었기에 더욱 필요한 교회의료기관의 사업임을 각인시켜 주었다고 생각된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부터 2002년 2월 말까지 본원에서 시행되었던 무료개안 시술건수는 323건이며, 약 25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 훌륭하게 사회복지 귀 중이다

결론적으로 본원에서의 무료개안시술사업은 사회사업가들로서의 가치의식의 확인과 더불어 사회사업 개입능력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행정프로세스에 의한 외부 후원기관을 적절히 연계함으로써 꼭 필요한

시술대상자들에게 개안시술을 시행토록 하여 그들에게 빛을 밝혀드리는데 작게나마 일조 함으로서 사회공동체 성원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였다는 커다란 의미를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의료복지 사회구현을 위해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산하 각 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한 금번 무료개안시술 사업은 이번 사업만이 아닌 다른 지속적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료기관의 사명이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이념실천의 참모습으로서 의료복지사회를 향한 사회공동체의 노력이기 때문인 것이다.

